중앙대학교

AI 시대를 넘어 AI 세대로

2024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BECAUS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CHUNG-ANG UNIVERSITY

입학처장 메시지 04

Ⅰ.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14
2. 지원자격 14
3. 전형일정 15
4. 수능최저학력기준 15
5. 전형방법 16
6. 합격자결정 17
7. 제출서류 및 방법 17

II. 202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20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22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24

III. 논술의 이해와 대비법

1.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27
2. 답안 작성을 위한 TIP 27
3. 수리 논술형 문제 28
4. 2023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29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4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2
2. 2024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44

V.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58
2. 경영경제계열 70

입학처장 메시지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 김영화 교수입니다.

AI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전 분야에서 시대를 이끌어갈 AI 세대를 육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가 2024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을 출간합니다.

중앙대학교의 논술전형은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가늠하고 검증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오랫동안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서술하는 능력은 대학에서의 지식 습득은 물론, 사회에 진출해 수행할 직업 활동에서도 필수로 요구되고 활용되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즉, 논리적 서술 능력은 대학 입학과 생활뿐만 아니라 새로운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험생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배양해야만 하는 중요한 기초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을 통해 478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인문계열 217명, 자연계열 261명을 모집하며,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학생부의 교과(성적)와 비교과(출결)를 반영하지만 합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논술시험을 충실히 준비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형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2024학년도 논술전형에서도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덜어 주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수험생, 학부모님,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불필요한 수고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논술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올해도 중앙대학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1. 출제 범위와 문제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지 않는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3. 논술 문제, 예시 답안, 채점기준 등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중앙대학교는 금년 5월에 7,0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논술시험을 실시하여 30여 명의 교수진이 학생들의 답안을 평가·첨삭하였고, 그 내용을 논술 가이드북에 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년도 기출문제, 출제 의도, 예시 답안, 채점 기준 등을 제시했으며, 감점이나 가산점의 요인까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올해 치러질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논술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은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지침서이자 필독서입니다. 올해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자연계열 과학논술 폐지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 학부모님과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궁금증과 고민이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논술 가이드북을 꼼꼼히 탐독하고 문제 유형과 답안 작성법을 익힌다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남들보다 앞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인재로 거듭날 수험생 여러분을 미래교육의 시작점이자 AI 시대를 넘어 AI 세대를 육성하는 '중앙대학교'로 안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힘든 입시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봄꽃이 만개한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김 영 화**

혁신 AI 인재를 양성하는 CAU AI+X 교육시스템

AI

차별화된 AI인재 양성, 중앙입니다.

전공 구분 없이 모든 분야와 AI를 융합한 'CAU AI+X'로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중앙대학교. 대학 교육의 길잡이로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중앙 안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특별한 세상을 만들어 갈 창의 인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선도
진취적 인재 양성

AI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우리 대학은 AI학과와 대학원, AI 공동연구소 등으로 AI 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공 구분 없이 모든 중앙인이 AI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AI 관련 강의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구성하여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혁신을 이룬 중앙대학교에서 AI 시대에서도 변화를 만들며 시대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학년 대상 AI 필수교양 운영

*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리터러시, AI시대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사고

AI 교육의 나침반
'AI대학원'

10년간 190억 원
AI 분야 강화

우리 대학은 2021년 4월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으로 2022년 국가 공인 인공지능대학원인 AI대학원을 개원해 중앙의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5년까지 석·박사 과정 50명, 전임교원 18명을 확보하고, 전교생 AI 교육을 위한 다빈치AI아카데미와 산학협력을 위한 다빈치AI공동연구소도 연계 운영하며 관련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앞설 것입니다.

10년간 / 최대 190억 원 지원

+X

혁신적 연구 성과
AI 분야 개척하는 대학

국내 학계·산업계 선도
우수 AI대학 파워 입증

우리 대학 AI대학원은 정부 주도 인공지능대학원 챌린지 대회 1~3위 석권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중분석 기술개발'이 실증절차에 돌입하며 군중분석을 통해 위험 요인 사전 분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눈부신 성과를 보이며 국내 인공지능 학계와 산업계를 선도하는 가장 우수한 AI대학임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대학 AI대학원은 이후에도 AI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가상융합대학'
대학교육 신대륙

서울 주요 대학 최초!
가상대학 설립

우리 대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다시 한번 교육혁신에 나섰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운영하는 가상융합대학(Virtuallege)은 실감미디어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운영방식으로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만드는 디지털 신기술 중심 단과대학입니다. 학생들은 확장현실(XR) 등 가상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학습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멤버십 교류회'
AI 기반 산학협력 확대

국제적 AI 리더 양성의 터전
AI대학원

지난 2022년, AI대학원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대학교AI대학원 기업체 멤버십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AI대학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두산, LG AI연구원, 삼성종합기술원, NC소프트, 새한창업투자 등 성장성이 매우 큰 기업들과 함께 각 기업과 진행할 활발한 협업 방안과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인턴십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상호 발전을 기약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와 같은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특성화 학문단위

변화를
리드하는
혁신의 노하우,
중앙입니다.

LEADING MAJOR 8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정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중앙에는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특성화 학과로
급변하는 시대를 이끄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지금, 중앙의 모습이 미래 중앙의 초석입니다.

공공인재학부 인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부문 인재 양성

민주적·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 공공부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국가 경영에 관련한 행정학과 정책학 과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 행정학트랙, 정책학트랙
- 공기업관리 연계전공, 공공규범 연계전공, 공공관리 연계전공

산업보안학과 인문+자연

창의융합형 산업보안 인재 양성

국내외 산업보안을 선도하는 학문단위로서 '기술의 보호'와 '산업의 보안'을 위해 요구되는 다차원적인 지식과 역량을 연구합니다.

- 산업보안 특성화학과 정부재정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메타버스 청정화 연구 사업단 유치(교육부)

첨단소재공학과 자연

미래 첨단소재산업의 주춧돌

데이터 기반 소재 해석 및 응용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하드웨어 소재를 연구·개발하고 제품 혁신을 이끄는 다빈치 리더를 육성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소재 분야의 전공지식 교육
- 현장 인턴 프로그램 등 현장 맞춤형 교육

예술공학부 자연

창의적, 실험적, 개방적 예술공학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미디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실용적 예술공학인,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 공학적 적용 능력을 융합할 수 있는 실험적 예술 공학인을 양성합니다.

- ERB(교육-연구-비즈니스) 학습 모델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 예술공학 유관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 및 교육 협업 체계 구축
- '디지털 휴먼' 관련 프로젝트 및 연구

게임개발트랙
Computer Game Development Track

영상특수효과트랙
Digital VFX Track

디지털아트트랙
Computer Generative Advertising Track

경영학부 글로벌금융전공 인문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허브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허브로서 경영학 전반은 물론, 재무금융 분야의 심화 지식을 교육합니다.

- 금융전문가트랙, 재무회계전문가트랙
- CFA, CPA, AICPA 등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GF참세미나, 전문가 Mentor Group

소프트웨어학부 자연

세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의 힘

소프트웨어학부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대학으로 격상되어 세부 전공별 맞춤형 트랙 교육, 몰입형 코딩교육, 실전적 현장교육 중심의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Co-Op(기업 인턴십)을 통한 기업개발 프로젝트 참여
- 해외 교육·연구 기관과의 현장교육 네트워크 운영
- SW멘토링/튜터링 및 SW창업 발굴·지원

AI학과 자연

국내 AI 기술의 혁신

중앙은 AI 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 AI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바른 윤리 의식 위에 기술 혁신을 주도할 창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 AI대학원으로 연계되는 연속성 있는 교육과 연구 환경 제공
- 국내 최고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 실무 역량을 키우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융합공학부 자연

독창적 연구능력을 보유한 융합공학인

다양한 공학·과학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고, 실무에 필요한 공학기술을 습득하며, 신개념 융합기술의 구현 및 국제사회의 융·복합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 나노소재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 세부 전공 운영
- 기초·응용 과학기술 개발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 최대의 미래형 교육혁신 복합 공간

100주년 기념관(310관)

국내대학 건물 중 단일면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00주년 기념관은 지하 6층, 지상 12층 규모의 연면적 75,058㎡의 대형 건물입니다. 최첨단 및 대형 강의실, 각종 연구실과 동아리실뿐만 아니라 학생 식당과 카페 등의 문화 복지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과 문화의 미래형 교육혁신 복합 공간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시설을 마음껏 누리며 혁신을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별한 학습을 위한 교육혁신 공간

다빈치 클래스룸 | 다빈치러닝 수업을 위해 조성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공간

크리에이티브 콤플렉스 | 국내 최고의 창업 지원 원스톱 플랫폼으로 복합 창업지원 공간

융합콘텐츠라운지 | 교내 융합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공간

다빈치 키움 스퀘어 | 비교과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한 학생-학교(부서) 간 소통 공간

THE NEW

혁신을 만드는 인프라, 중앙입니다.

15 Years Development

2009-2010

중앙도서관
2009년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

기숙사 블루미르홀 1차
2010년 완공

2011-2013

약학대학 R&D센터
2011년 완공

교수연구동
2011년 증축 완료

더욱 새로운 연구·교육 공간

108관

교육공간의 추가 확보와 캠퍼스타운추진단의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108관을 신축했습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완공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8층 규모로, 연면적 3395㎡ 의 대형 건물입니다. 강의실부터 도서관, 실습준비실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축된 108관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넓고 깨끗해진 공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넓히며 미래를 더욱 다채롭게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 캠퍼스 추진사업단(1~2층)
- 적십자간호대실습준비실(3층)
- 사회 교육처 강의실 및 교수실(3~5층)
- R&D 사업단(5층)
- 의학도서관(6~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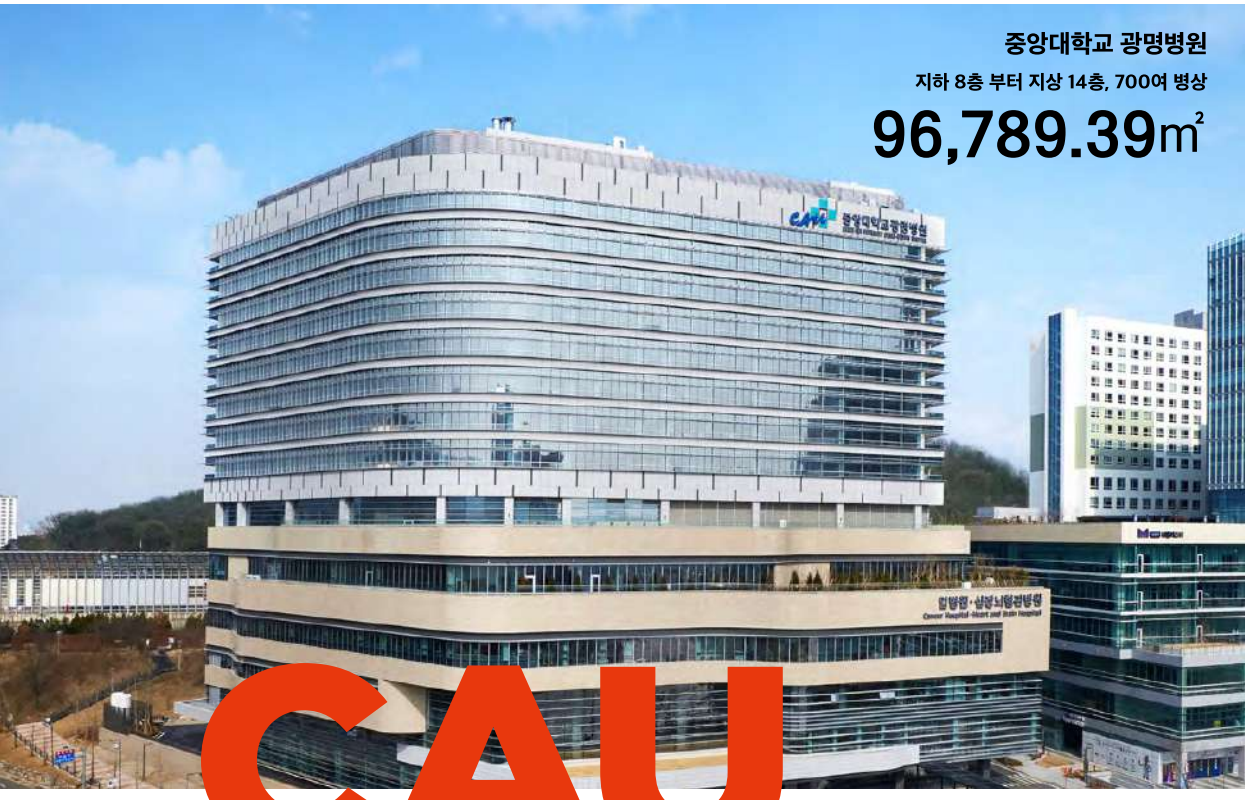
산학협력 연구·학습 복합 공간

2023.03신축

01 108관
강의실부터 실습준비실까지
복합 연구·교육 공간

02 블루미르홀(308, 309관)
기숙사 총 1,157호실 2,408명 수용공간

03 창업발전소 Express
공유오피스부터 시제품전시실까지
창업 지원의 전 시설 보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지하 8층 부터 지상 14층, 700여 병상

96,789.39㎡

CAU

혁신적 미래를 만드는 중앙인을 위해 새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중앙대학교.
끊임없는 공간의 개발은 혁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앙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14

병원 별관
2011년 완공

기숙사 퓨처하우스
2012년 완공

기숙사 블루미르홀 2차
2014년 완공

2016-2020

100주년 기념관
2016년 완공

창업발전소 Express
2020년 완공

2022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2022년 완공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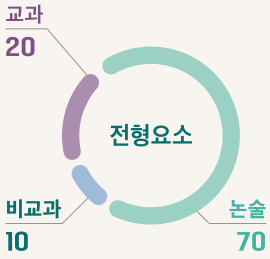
108관
2023년 완공

I.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14
2. 지원자격 14
3. 전형일정 15
4. 수능최저학력기준 15
5. 전형방법 16
6. 합격자결정 17
7. 제출서류 및 방법 17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 논술 70%, 학생부 30%(교과 20% + 비교과(출결) 1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며 인문계열은 통합형, 자연계열은 단일 교과형(수학)으로 출제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 논술 기출문제, 예시답안, 채점기준 등 다양한 정보 공개)
- 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 반영
  비교과(출결): 미인정 결석 1일 이하이면 만점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6
			영어영문학과		10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	4
				프랑스어문학	4
				러시아어문학	4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4
				중국어문학	4
			철학과		5
			역사학과		5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6
			심리학과		8
			문헌정보학과		4
			사회복지학부		6
			사회학과		7
			도시계획·부동산학과		5
			공공인재학부		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9
		사범	교육학과		5
			영어교육과		7
		경영경제	경제학부		11
			응용통계학과		5
			광고홍보학과		6
			국제물류학과		5
			경영학부	경영학	55
				글로벌금융	6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11
	계				217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5
			화학과		5
			생명과학과		6
			수학과		5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9
				도시시스템공학	5
			건축학부		10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0
			화학공학과		10
			기계공학부		23
		창의ICT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5
			융합공학부		10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20
			AI학과		5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4
		약학	약학부		25
		의과	의학부		19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13
	다빈치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	6
				식물생명공학	6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7
				식품영양	6
			시스템생명공학과		6
		공과	첨단소재공학과		8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13
	계				261
논술 총계					478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일정

1) 전형 전체 일정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3. 9. 12.(화) 10시 ~ 15.(금) 18시		
서류제출	2023. 9. 12.(화) ~ 19.(화)(우편발송 접수일 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 제출
고사장 조회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3. 11. 21.(화) 14시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시험장소: 서울캠퍼스 내 고사장
논술고사	자연: 2023. 11. 25.(토)	인문: 2023. 11. 26.(일)	
최초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14시		• 세부 발표 및 등록 일정은 홈페이지 추후 공고
최초 합격자 문서 등록	2023. 12. 18.(월) ~ 21.(목)		
충원 합격자 발표	2023. 12. 22.(금) ~ 28.(목) 18시		
합격자 전체 등록금 납부	2024. 2. 7.(수) ~ 13.(화)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2)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

구분	11. 25.(토) - 자연계열		11. 26.(일) - 인문계열	
	대학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
1교시 (10:00 -12:00)	자연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경영경제	경영학부 전체,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전체,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건축학부,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첨단소재공학과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전체, 식품공학부 전체, 시스템생명공학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AI학과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2교시 (14:00 -16:00)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사범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인문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 전체, 아시아문화학부 전체, 철학과, 역사학과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약학	약학부		
	의과	의학부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 지원한 모집단위가 배정되어 있는 시험일 및 시간에 응시해야 함(타 시험시간에 응시할 경우 퇴실 조치)

※ 입실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전형 일정 및 진행 방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수험생 유의사항과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수능최저학력기준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캠퍼스	계열	모집단위	영역별 기준		탐구영역 반영 방법	공통
서울	인문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전체(약학부, 의학부 제외)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 1), 영어, 과탐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약학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의학부			2과목 평균 반영[1]	
다빈치		전체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1] 2과목 평균은 소수점 자리 버림 없이 그대로 반영(예시: 4개 영역 등급 합 5.5인 경우 미충족)

※ 영어 등급 반영 시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를 산정

※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논술 70% + 학생부 교과 20% + 학생부 비교과(출결) 10%

※전형 최고점 1,000점, 최저점 0점 기준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대상: 지원자 전체(단, 비교내신 대상자 제외)

교과		비교과(출결)
반영 교과	반영 교과의 반영 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점수 활용 ※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 교과별/학년별 가중치 없음	미인정 결석 일수 기준으로 환산점수 반영

②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 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 방법
국내고교 2022년 2월 이전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자 포함)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3) 논술

① 출제수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둔 출제

② 출제유형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시험시간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언어논술(3문항)	120분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	언어논술(2문항), 수리논술(1문항)	
자연	자연	전 모집단위	수리논술(4문항)	

③ 출제범위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인문	인문사회/ 경영경제	언어논술	국어교과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사회교과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영경제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자연	자연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본교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 기준

구분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	논술 총점 고득점자 → 2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1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3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자연 (약학부/의학부 포함)	논술 총점 고득점자 → 4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3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2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1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함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세부내용	세부내용
필수	전체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서류	• 온라인 제공 동의자※: 별도 제출 없음 • 그 외: 우편 제출 (2023. 9. 12.(화) ~ 19.(화))	• 국내고교: 학교생활기록부 (2022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로 제출 가능) •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온라인 제공 동의: - 국내고: 2016년 2월 ~ 2024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지원자
- 검정고시: 2015년 1회차 ~ 2023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 지원자

2)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1) 제출서류' 표의 해당 서류를 아래 제출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	기한	2023. 9. 19.(화)까지 발송된 우편물까지 인정 ※ 마감 기준일: 우편발송 접수일(우편물에 찍힌 접수날짜 기준)
	대상 서류	'1) 제출서류'의 해당 서류
	방법	① 서류봉투에 '서류제출용 봉투표지'를 부착 ② '입학원서'와 함께 대상 서류를 밀봉하여 본교 입학처로 **등기우편** 발송 ※서류제출용 봉투표지: 원서접수 후 확인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수신자 주소 기재되어 있음

※ 전체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방문제출이 불가**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와 입학원서 인적사항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는 우편 제출하지 않으며 전형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II.
202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20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22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24

202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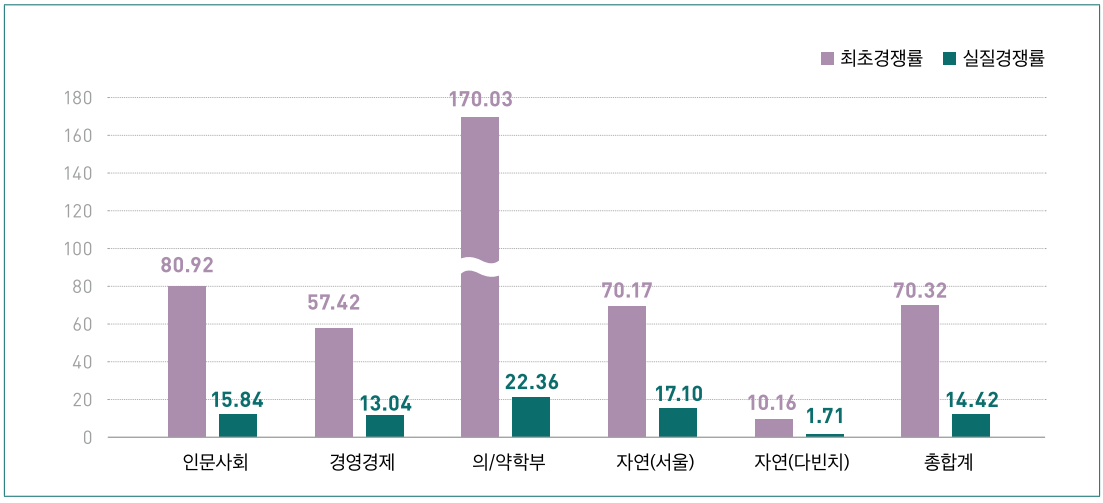
모집인원 및 경쟁률

- 논술전형 경쟁률 70.32:1 (487명 모집, 34,248명 지원)
- 의학부(238:1), 약학부(126.77: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107.22:1), 정치국제학과(99.67:1), 소프트웨어학부(99.35:1), 공공인재학부(98.60:1) 최상위 경쟁률 기록

[표1-1] 논술전형 경쟁률 및 추가합격률

모집계열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초경쟁률	실질경쟁률	추가합격률
인문사회	130	10,519	80.92:1	15.84:1	25.4%
경영경제	89	5,110	57.42:1	13.04:1	12.4%
의/약학부	36	6,121	170.03:1	22.36:1	2.8%
자연(서울)	169	11,858	70.17:1	17.10:1	24.3%
자연(다빈치)	63	640	10.16:1	1.71:1	19.1%
총계	**487**	**34,248**	**70.32:1**	**14.42:1**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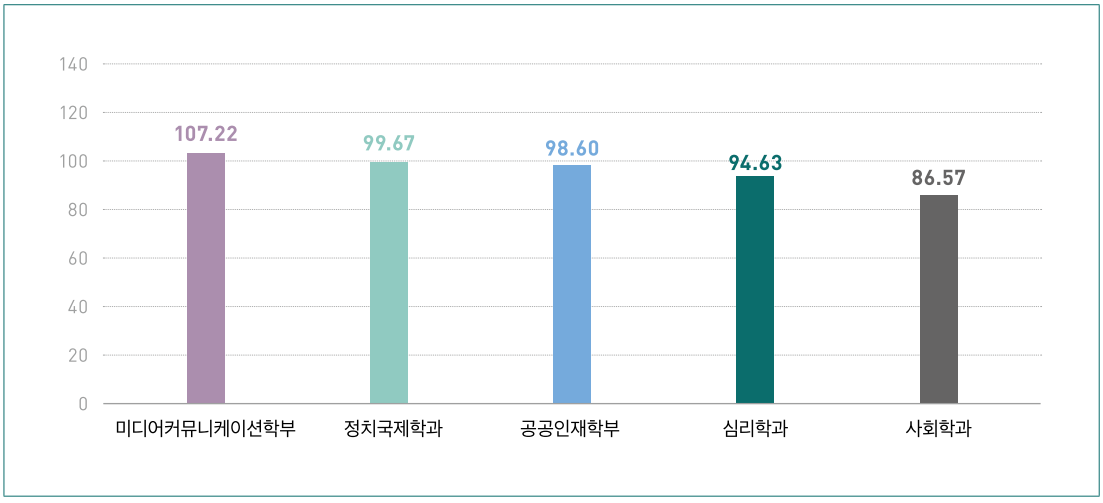
[그림 1-1] 2023학년도 논술전형 최초경쟁률 및 실질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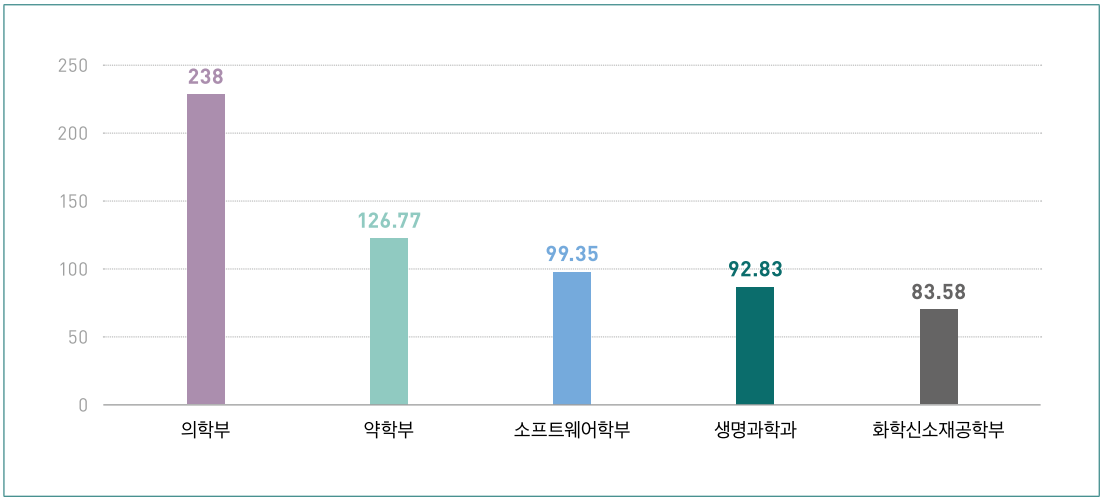
2023학년도 논술전형 경쟁률은 전체 70.32:1로, 전년도(49.0:1) 보다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 입학전형 중 정시 비중 4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모집 인원이 대거 정시모집으로 이관되며 모집인원이 축소된 결과로 보인다.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수시모집 타 전형에 비해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의 20% 수준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 후 공지되는 최초 경쟁률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논술계열별 최초경쟁률과 실질경쟁률(응시율/수능최저기준통과율 적용)을 비교해보면 **인문사회는 15.84:1, 경영경제는 13.04:1, 자연(서울)은 17.10:1 등 실질경쟁률이 최초경쟁률 대비 2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 경쟁률을 보인다.

서울 소재 자연계열 모집단위(학과)의 2023학년도 평균경쟁률은 70.17:1로 상승하였다. 의학부의 경우 238:1의 경쟁률로 지난해(194.4:1)와 비교하여 상승하였으며, 약학부도 126.7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빈치캠퍼스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10.16:1로 자연계열 평균경쟁률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림1-2] 인문계열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



[그림1-3] 자연계열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



계열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다섯 개 학과는 [그림 1-2],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 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와 심리학과는 10년 연속 최상위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 학과임을 입증하였다. 자연계열에서는 의학부의 경쟁률이 전년도(194.4:1)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의학부와 약학부를 제외하면 소프트웨어학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70% 일반고 출신 학생이 차지**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37% 고3(졸업예정자)로 나타남(합격자 중 인문 26.69%, 자연 45.63% 고3(졸업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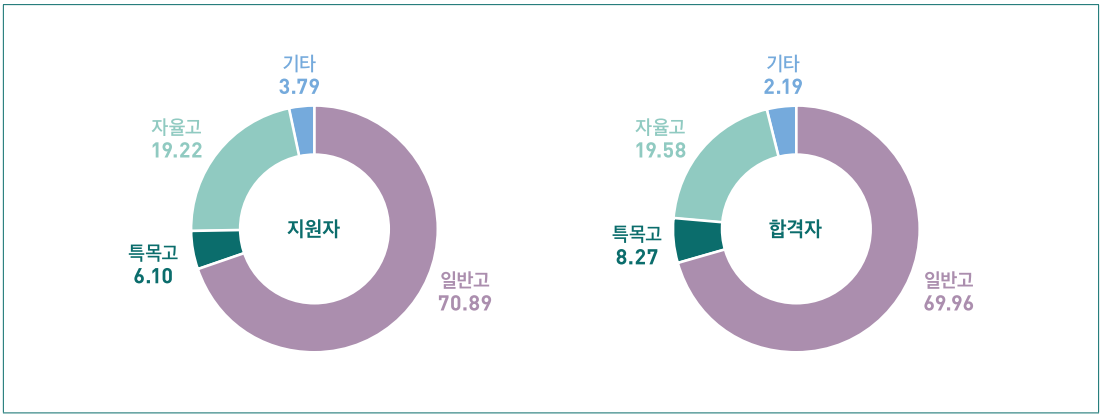
1) 고교 유형별 분석

합격자의 70%가 일반고 출신이며 20%가 자율고, 8%가 특목고 출신 학생으로, 전년 대비 일반고가 약진하고 자율고가 소폭 하락하였다. 특목고의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은 인문계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표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인문	70.98	10.18	14.58	4.26	69.93	14.66	13.53	1.88
자연	70.80	2.02	23.86	3.32	70.00	1.88	25.62	2.50
전체	**70.89**	**6.10**	**19.22**	**3.79**	**69.96**	**8.27**	**19.58**	**2.19**

[그림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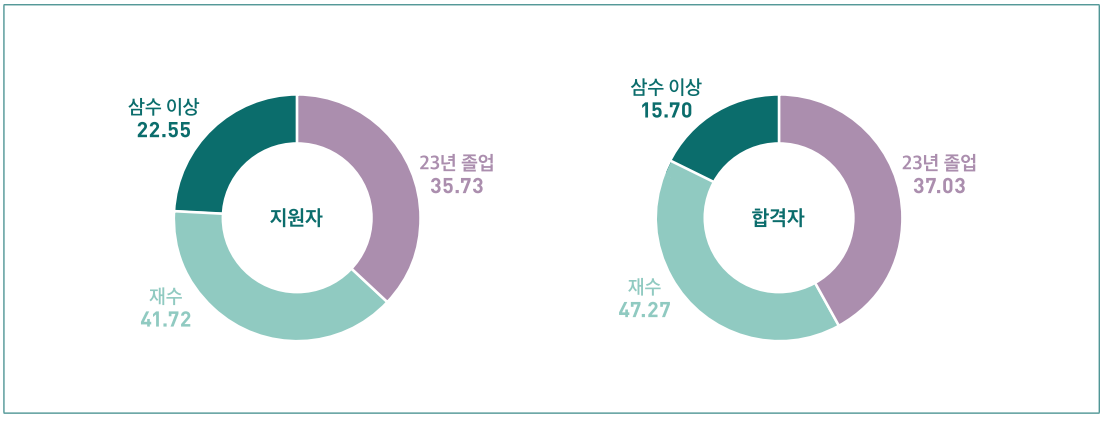
2) 고교 졸업시기별 분석

지원자 중 35.73%가 고3(졸업예정자)였으며, 합격자 비율은 37.03%로 지원 비율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에서 재수생이, 자연계에서는 고3 지원자가 강세를 보였다.

[표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23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23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인문	37.16	43.75	19.09	26.69	59.02	14.29
자연	34.53	40.01	25.46	45.63	37.50	16.87
전체	**35.73**	**41.72**	**22.55**	**37.03**	**47.27**	**15.70**

[그림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202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논술/교과 성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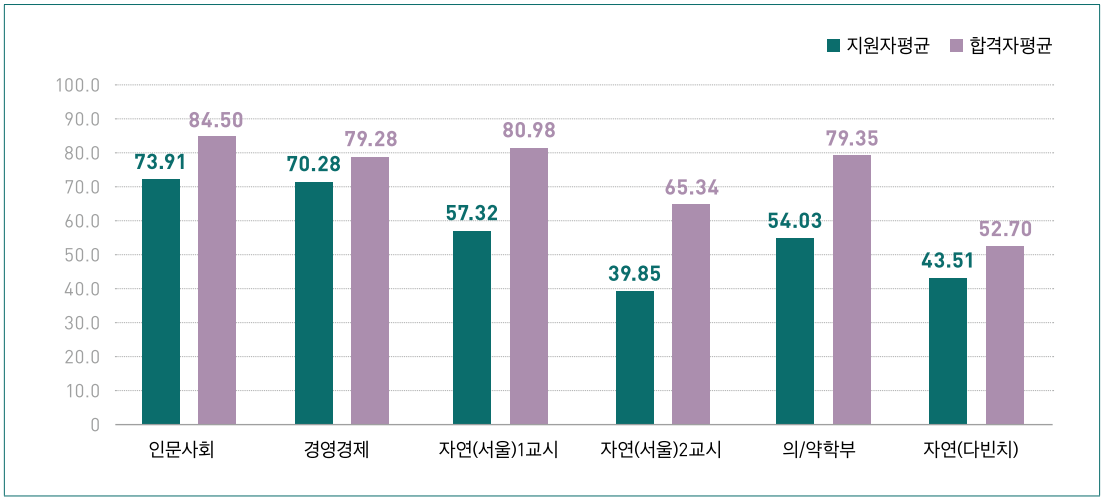
- 합격자 논술 인문사회 79.28점, 경영경제 84.5점, 자연(서울) 75.22점, 자연(다빈치) 52.7점
- 경영경제, 자연계열 논술 수리문항 고득점 중요
- 2024학년도 자연계열 과학논술 폐지, 확률과 통계 출제범위 추가

1) 논술성적 분석

[표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캠퍼스	구분	교시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문사회	2교시	70.28	7.42	79.28	2.37
	경영경제	1교시	73.91	10.98	84.50	1.59
	자연 (의/약학부 제외)	1교시	57.32	16.35	80.98	4.43
		2교시	39.85	11.77	65.34	4.22
	의/약학부	2교시	54.03	16.67	79.35	7.15
다빈치	자연	1교시	43.51	16.85	52.70	12.41

[그림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본교 논술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논술전형에 출제되는 제시문과 개념 모두 고교과정의 교과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한다면 논술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본인이 지원하는 계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인문계열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따라 인문사회논술 또는 경영경제논술을 응시하게 된다. 인문사회논술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논술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으로 구성된다. 인문사회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79.28점**, 경영경제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84.5점**이다. 경영경제논술의 경우 합격자 대부분이 수리논술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수리논술의 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풀이 과정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접근과정과 정답을 작성하되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계열은 2024학년도 논술전형부터 과학논술이 폐지되어 기존 수학 3문항, 과학 1문항에서 수학 4문항으로 변경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도 과학문항보다 수학문항에서 변별력이 높았던 만큼, 지원자 평균 점수와 합격자 평균 점수의 간극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자연계열 논술임에도 1교시와 2교시간 합격자 평균점수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결과만 보았을 땐 자연계열 2교시가 1교시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참고하여 기출문항을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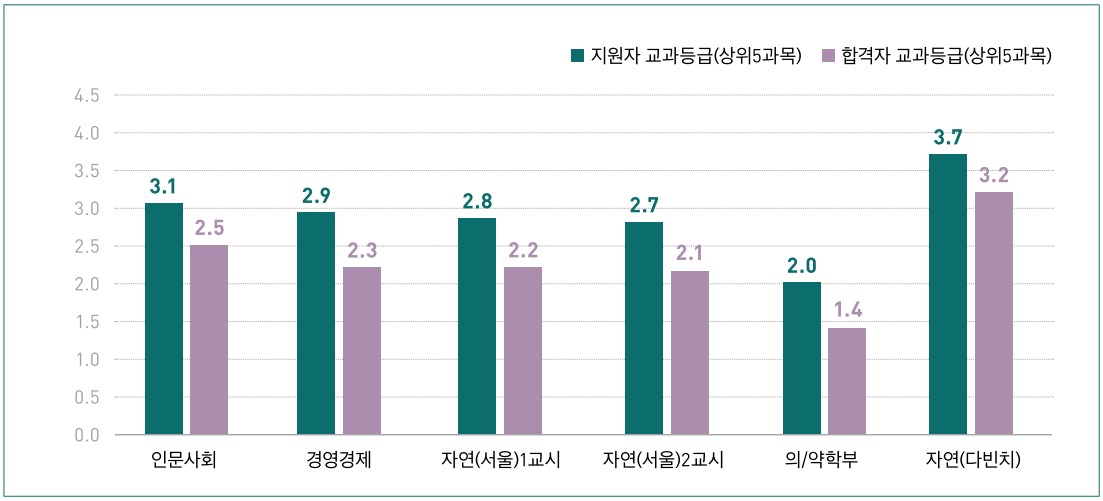
다빈치캠퍼스는 합격자 평균이 52.7점, 표준편차가 12.41에 달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과 성적 분석

[표 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5과목) 현황

캠퍼스	구분	교시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문사회	2교시	3.1	1.2	2.5	1.1
	경영경제	1교시	2.9	1.2	2.3	1.0
	자연 (의/약학부 제외)	1교시	2.8	1.1	2.2	0.9
		2교시	2.7	1.1	2.1	0.8
	의/약학부	2교시	2.0	1.1	1.4	0.7
다빈치	자연	1교시	3.7	1.2	3.2	1.0

[그림 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5과목) 현황



교과 성적 반영방법 중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상위 과목에 한해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1~3학년 반영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체 이수과목 중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이 석차등급으로만 가장 높은 상위 5과목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교과 반영 비율은 높지 않으며, 논술 성적이 당락에 크게 좌우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2023년 2월 졸업자까지 적용하며, 이전 졸업자 및 해외고교 졸업자 등은 논술 성적에 의한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

III.
논술의 이해와 대비법

1.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27
2. 답안 작성을 위한 TIP 27
3. 수리 논술형 문제 28
4. 2023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29

논술의 이해와 대비법

1. 인문사회/경영경제 계열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의 방식은 '통합 논술'으로 개별 교과목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통합 논술은 수험생들의 이러한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수험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논리적 혹은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통합 역량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시험 문제에 사용되는 제시문들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통합 논술 시험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통합 논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묻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제 구성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문항 3문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2문제와 수리 논술형 문항 1문제로 되어있다. 언어 논술형 문제와 수리 논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KEYPOINT

- 통합 논술에 대하여 이해하기
- 교과서에서 다뤄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활용
-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과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의 차이점 알기

답안 작성을 위한 TIP

첫째, 언어 논술형 문제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정확한 독해력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논술 준비의 출발이다. 물론 독해력은 고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 다만 조금의 준비를 더한다면, 논술 시험에 활용되는 개별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각 단위' 또는 '대비되는 생각 단위들'을 담은 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글들을 선택하여 5~10분 내외의 정해진 시간 안에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즉, 교과서를 읽을 때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논술 시험에 주어진 시간이 120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 논술의 답안은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쓰는 요약적인 글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 논지에 대한 독해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압축하여 답안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6~9개)의 제시문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제시문의 전체적인 논지를 제한된 시간 내에 파악하고,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의 글자 수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답안의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들은 여러 개의 제시문에서 핵심 논지 파악, 차이점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지의 재구성 등 문제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글쓰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다. 통합형 논술에서는 여러 제시문의 핵심 주제들을 활용하면서도 제한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논리적 구조를 갖춘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의 답안 구조는 문제 유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론, 본론, 결

론의 형식을 갖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문제의 경우 질문에 나타난 제시문 간의 관계 및 문제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KEYPOINT

-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기르기
-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으로 요약하는 연습하기
-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답안의 구조를 갖춘 글쓰기 연습하기

수리 논술형 문제

수리 논술형 문제는 수리적 능력에 기초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리형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리적 능력은 수학 교과목에서 배운 특정 개념과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보다는 수험생이 제시문과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답을 찾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리적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리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 접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POINT

- 제시문과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 답을 찾는 논리적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2. 2023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23학번 이다인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논술전형으로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합격한 이다인입니다.

Q.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논술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다인 학생이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원하게 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A. 중앙대학교의 논술고사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글의 핵심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대학교의 논술시험에는 다량의 짧은 지문들이 제시되고 이들을 묶어 요약하여, 그 관계를 서술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500자의 글자수 제한으로 지문당 할당된 분량이 적어 그 글의 핵심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해야 합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은 매년 문제 출제 방식이 유사했기 때문에 핵심 파악과 요약에 자신이 있던 저는 중앙대학교 논술을 지원하였고, 유형별 연습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논술과 수능 시험 때 많이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논술과 수능 시험 당일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A. 수험생활 동안 수많은 모의고사와 모의논술을 치렀지만, 당일의 부담감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입시 방법 중 논술전형을 가장 우선하여 준비했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중압감이 컸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자신 있던 과목들을 잘 풀자고 다짐해 가며 긴장감을 낮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수능 시험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수능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매 시각 바뀌는 예상 등급과 정확하지 못한 성적에 목매달기보다는 그 시간에 꿋꿋이 논술고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후 1~2주가 논술 합격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중도와 공부량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논술고사 당일에는 타 대학 논술 응시 후 중앙대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오토바이를 한 시간씩이나 타다 보니 너무 떨리고 긴장됐었습니다. 다행히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제 평소 루틴대로 준비했던 노트를 읽으며 연습했던 것을 복기하였고, 침착하게 고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리한 필기 종이나 얇은 노트들을 준비하여 계획한 대로 시험을 치른다면 효과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Q. 논술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나만의 팁이 있다면?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다면 활용방법도 공유해 주세요.

A. 중앙대학교 논술고사를 대비하며 가장 먼저 논술 가이드북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가이드북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확실한 평가 기준과 출제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글을 써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정확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을 꼼꼼하게 암기하듯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에 응시해 실전 분위기를 경험해 보고, 답안에 대한 대학의 의견도 받아 보완해야 할 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이렇듯 대학에서 제공하는 수험생 대상 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면, 명확한 준비 방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공부 방향을 설정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거라 생각합니다.
논술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논술 공부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대개 논술전형으로 합격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률상으로 보았을 때는 경쟁이 치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논술 합격이 로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전형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과 균형 있는 준비 계획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3학번 조유민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논술전형으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조유민입니다.

Q.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논술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유민 학생이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원하게 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A. 제가 생각하는 중앙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만 짧은 지문들, 한 지문당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닌, 여러 지문을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나오되 답안의 분량이 다소 짧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의 강점은 주어진 제시문을 빠르게 독해하여 핵심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제시문이 많다 보니, 제시문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빠르게 찾고 키워드를 포함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논술과 수능 시험 때 많이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논술과 수능 시험 당일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A. 수능은 정말 많이 떨렸지만 상대적으로 논술고사는 떨리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논술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쉬운 편이 아니고, 미세한 차이로 등급이 갈려 논술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전날에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당일에도 예상과는 다른 국어 난이도에 멘탈이 흔들렸고, 그 뒤로도 다른 과목들까지 다 망쳤다고 생각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시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등급보다 채점 후 나온 등급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며 다독여 주며 수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시험은 크게 떨리진 않았지만, 긴장되는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특성상 많은 지문을 빠르게 독해해야 하는데, 독해가 잘 안되고 이해가 어려운 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중요한 문장에 밑줄 정도만 치고 넘어갔고, 다른 지문을 독해한 뒤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또, 긴장감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문마다 키워드를 적어 두었습니다. 제시문의 양이 많다 보니, 정신없이 독해를 하다 보면 초반에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수험생들께선 시험 전 여러 번의 연습 과정에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논술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나만의 팁이 있다면?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다면 활용방법도 공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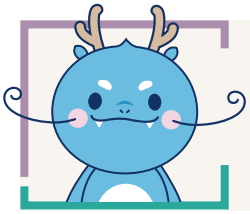
A. 논술 팁은 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독해력 기르기,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글쓰기, 학교 성향 파악하기 등등 뻔한 얘기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글은 계속 혼자 써보고, 비교해 보고, 고쳐보는 과정에서 실력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논술가이드북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께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은 정말 잘 구성되어 있고, 유형화된 시험에 맞게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술 준비 때 시간을 재며 문제를 풀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예시 답안과 채점기준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두 단어 중 무엇을 쓸지 고민했던 게 있다면 대학 답안은 어떤 단어를 썼는지, 비슷한 뜻의 단어가 많을 때 대학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등을 스스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중요하구나.', '서론에서는 제시문에 나온 상황을 그대로 적기보다는 내 말로 키워드화하여 적어야 하겠구나.' 등 학교의 성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글을 고쳐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합격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험생들께 정말 잘하고 있고 대단하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며 느껴지는 두려움과 입시가 끝난다는 후련함이 공존하여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하던 대로 논술과 수능을 준비한다면 원하시는 결과가 따라줄 거라 믿습니다. 중앙대 논술가이드북으로 대학의 성향을 파악하고 유형화된 문제를 분석하며 공부하고, 스스로의 답안을 끊임없이 첨삭하고 고쳐 쓰다 보면, 점점 예시답안과 비슷해져 가는 나의 답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경쟁률이나 많은 지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위의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신경 쓰기 보다는,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수험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중앙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4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2
2. 2024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44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4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데릴사위로 살고 있는 '나'는 아내가 될 '점순'의 키가 크면 혼인을 시켜준다는 장인의 말을 믿고 3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지만, 장인은 혼인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담판을 지어 결혼을 허락받으라는 점순이의 성화에 자극을 받은 나는 관격*을 빙자하여 일을 안 하며 꾀를 부린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나이가 먹어 못 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 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유, 아이구 배야!"

"기껀 밥 처먹구 나서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 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오늘은 열 쪽이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중략]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 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정말로 바보로 알 게 아닌가.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부려만 먹구 왜 성례* 안 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 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낼이라두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한번은 장인님이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낚았다.

"아! 아! 이놈아! 놔라, 놔, 놔……."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순아! 점순아!"

안에 있었든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질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

서는 달려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어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었다. 이렇게 꼼짝도 못 하게 해 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관격: 먹은 음식이 체하여 가슴 속이 막히고 위로는 계속 토하며 아래로는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위급한 증상.
*성례: 혼인의 예식을 지냄.
*역성: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 주는 일.

(나) 1927년 연말의 일이었다.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나만 한때 가스 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끼었다.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노동이었다.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첫날은 3원 20전이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3원 50전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조선인이면 부두 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은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이런 육체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 보려고 했다.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쓰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쓰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 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한번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 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참으로 서글펐다.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후회했다.

(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진 '지소'와 '지석'은 엄마와 함께 한 달째 작은 승합차에서 살고 있다. 다음 달이 생일인 '지소'는 생일 파티 계획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얼떨결에 집에서 할 생각이라고 답하고 친구 '채랑'과 함께 당장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한다. 돈을 구하기 위해 '지소'와 '채랑'은 레스토랑 '마르셀'에서 보았던 개 '월리'를 몰래 훔친 후에 사례금 오백만 원만 받고 바로 돌려주기로 한다.

S# 75 레스토랑 마르셀 - 집무실, 낮

노부인 월리를 어디에서 봤니?

지소 (사이를 두고) 아, 하……, 학교 앞에서 봤어요.

수영 (지소를 노려보며) 월리가 맞아?

지소 네, 확실해요.

노부인 잃어버린 거 아니다. 월리는 집을 나간 거야.

지소 (급한 마음으로)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노부인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지소 우리……. 우리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소의 말에 굳은 표정이 풀리는 노부인의 얼굴.

노부인 아빠가 집을 나갔니?

지소 아니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아니, 나가긴 한 건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거예요. 월리도 그렇고요.

노부인 음? (자리에서 일어나 지소에게 다가오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지소 (당당히) 전단요. 개를 찾는다는 전단. (다시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거기에 사례금도…….

노부인 사례금? (대충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래, 얼마면 되겠니?

지소 (갑자기 큰 소리로) 오……, 오백만 원이요.

노부인 (가만히 지소를 바라보다가 수영을 손짓으로 부르며) 들었지? 꼬마가 하라는 대로 해 줘.

S# 84 레스토랑 마르셀 - 홀과 집무실, 낮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바라보는 노부인과 지소.

노부인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서른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 되지 않아. 난 이 사람 그림을 모으고 있어. 그런데 인제 그만둘 때가 된 거 같아.

지소, 그림 밑에 보이는 화가의 이름을 찾아서 쳐다본다.

지소 윤서오? 혹시 이 사람이…….

노부인 내 아들이란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지소 그 개가……, 월리인가요?

S# 90 학교 - 교실, 낮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 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 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데려다준다. → 돈을 받는다. → 행복하게 끝!"이라는 글이 보인다.

지소(내레이션)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오백만 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소는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채랑 (지소의 행동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왜?

지소 너 말이야,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

채랑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지소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우리는 월리를 마르셀 앞에까지만 데려다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채랑 오, 완벽한데? 좋았어!

S# 97 레스토랑 마르셀 - 홀, 저녁

홀에 들어온 지소는 월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 준다.

지소 월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녕.

(라) **[앞부분의 줄거리]** 아내는 겉보기엔 평범한 성격의 가정주부이다. 아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면서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된다. '나'는 이런 아내를 못마땅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나'와 아내는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게 된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 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꿨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녜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마) 장자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감각과 마음을 통해 얻는 지식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는 편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것과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장자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옳고 그름, 귀함과 천함, 아름다움과 추함 등의 분별을 초월하여 자연 만물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갈퉁은 폭력의 의미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폭력에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대변되는 직접적 폭력과 법률과 제도에 의한 억압을 의미하는 구조적 폭력, 그리고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 기저의 문화적 폭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바) 서민들의 경우 조선 후기까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지 않았다. 민가에서는 오히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하는 풍습까지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기후에 민감했던 농경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사회에서 농민들은 하늘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늘 조심하였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믿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도 비 오는 날에 우산 사용을 꺼려했다고 한다. 당시 『독립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외국인이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갔다가 몰매를 맞은 일까지 있었을 정도다. 우산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산의 사용은 점차 확산된다.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도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여학교가 설립되었다. 다만 얼굴을 드러내 놓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쓰개치마*를 쓰고 등·하교하였다. 그런데 배화 학당에서 쓰개치마를 교칙으로 금한 일이 있었다. 학생들과 가족들은 얼굴을 내놓고 거리를 다닐 수 없다며 반발하였고 이 때문에 학생들 상당수가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파장이 컸다. 결국 배화 학당은 쓰개치마 대안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닐 수 있도록 검정 우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후 우산은 일반 여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했고, 얼굴을 가리는 용도와 더불어 햇빛을 가리는 양산으로까지 확대되어 멋을 내는 도구가 되었다.

*쓰개치마 : 예전에,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내외(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함.)를 하기 위하여 머리와 몸 윗부분을 가리어 쓰던 치마

(사)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침’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

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밀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그런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이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경계하는 말이다.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 논쟁의 출발점도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논쟁의 규칙이다. 그러자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만 있게 된다.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한다.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아) '루틴(routine)'이란 스포츠에서 '경기를 하기 전에 긴장감을 떨치려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반복적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스포츠 심리학자에 따르면, 루틴은 선수가 승리를 위해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 루틴은 행동만 일컫는 말이 아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길 수 있다."라든지 "자신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선수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말은 단순히 허세나 자만심이 아니라,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일종의 루틴인 것이다.

루틴은 '징크스(jinx)'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징크스는 '좋지 않은 일이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면도를 한 날 경기에서 패했다면 면도라는 행위 자체가 해당 선수에게는 징크스가 된다. 징크스는 자신이 경험한 행동으로 인해 우연히 시합에서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강력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동이다. 이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 나도 자전거를 배우려고 몇 번 시도를 해 봤다. 뒤에서 아버지께서 잡아 주시고 내가 페달을 밟아 바퀴를 굴리는 식이었는데, 운동 신경이 형편없었던 나는 계속 넘어지곤 했다. 몇 번 넘어지는 그 순간만 넘어서면 다음부터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넘어지는 순간의 두려움과 아픔이 겁나서 끝끝내 자전거를 배우지 못했다.

한 번의 사업 실패는 아버지를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곧 다시 일어서셨다. 서울에서 홀로 실패의 아픔에 맞서 싸우셔야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실패는 두렵지만 이전에 겪었던 한 번의 실패가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 등을 떠올리면 좀 더 쉽게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셨다.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는 녹슨 자전거를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났다. 나에게 자전거를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시던 그 모습. 그때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다.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안 넘어지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차) 선생님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구체적이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싶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목이 풀리기 전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두 옥타브씩 세 번만 불러라.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쯤 부르면 된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 하라는 거야. 그렇게 변성기 지나고 목소리가 정해지는 고등학교 3년 동안만 해도 누구한테나 좋은 인상을 주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

같은 반에 학교 주변 폭력계의 실력자로 알려진, 학교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와 단 한 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대학에 꼭 가고 싶다고 했다. 학교 성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싸움은 자신 있지만 싸움 실력으로는 체대에도 못 가니 예능 쪽으로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일년쯤 뒤인 2학년 봄 소풍을 갔을 때였다. 장기 자랑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그 친구에게 나와서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망설임 없이 나오더니 독일어로 된 가곡을 유창하게 불렀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 대학에 가고 싶고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시키는 대로 꾸준히 실천한다는 조건하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음대에 진학할 수 있는 노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고등학교 2학년, 생애 마지막 음악 시간이 되어 버린 그 시간에 음악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가끔 곱씹고 있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말씀을 해 주었다.

"너희의 미래는 지금 너희가 되기를 열렬히, 간절하게 바라는 바로 그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모임 참석자들이 채식주의자인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모임 참석자들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설명된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할 때 지녀야 할 자세를 제시문 (자)와 제시문 (차)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김유정, 「봄·봄」, 정민 외 26인, 『국어』, 해냄에듀, 2018, 66-79쪽.
- 제시문 (나) 이봉창,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18, 51-56쪽.
- 제시문 (다) 바바라 오코너 원작, 김성호·신연식 각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박영민 외 7인, 『국어』, 비상교육, 2018, 86-98쪽.
- 제시문 (라) 한강, 「채식주의자」, 정호웅 외 5인, 『문학』, 천재교육, 2019, 317-321쪽.
- 제시문 (마) 「도가 사상의 전개」, 정창우 외 9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9, 79쪽.
  「도가 사상의 전개」, 류지한 외 8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9, 75쪽.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 사상」, 황인표 외 9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9, 217쪽.
- 제시문 (바) 김진섭, 「우산, 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다」, 이삼형 외 5인, 『독서』, 지학사, 2019, 144-146쪽.
- 제시문 (사) 박성희,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박영목 외 4인, 『독서』, 천재교육, 2019, 66-68쪽.
- 제시문 (아) 공규택, 「피하고 싶은 '징크스'와 해야만 하는 '루틴'」, 박영민 외 5인,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2019, 140쪽.
- 제시문 (자) 채지혜, 「어느 아마추어 천문가처럼」, 김동환 외 6인, 『국어』, 교학사, 2019, 15-17쪽.
- 제시문 (차) 성석제, 「아무도 모르라고」, 정호웅 외 5인, 『문학』, 천재교육, 2019, 124-125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8)에 실린 김유정의 「봄·봄」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갈래와 특성' 단원 중 '문학의 여러 빛깔'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의 일반적인 네 가지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 작품이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여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는 혼인을 승낙하지 않는 장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는 점순이의 성화를 의식하여 '나'가 꾀병을 부리며 장인과 다투는 장면이 등장한다. 멀리서 몰래 지켜보는 점순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가 장인의 매질에 강하게 반격하자 장인의 비명을 들은 점순이가 달려와 장인 편을 들며 '나'에게 역정을 내었고, 이에 나는 얼이 빠져 허탈해진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비상교육, 2018)에 실린 이봉창의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소통하는 독서' 단원 중 '추론적 읽기'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쓴이의 의도와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까지 추론하여 읽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견디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나'가 등장한다. 이러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나'는 일본인으로 속이고 일을 하지만, 조선인과 교제하지 못하고 다른 조선인들이 차별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적 고통을 느끼며 후회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바바라 오코너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극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감상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진 지소는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해 노부인의 개 '월리'를 훔쳐서 사례금을 받을 계획을 세운다. 지소는 아빠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이듯이, 노부인에게 있어 월리가 죽은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례금을 받을 계획을 포기하고 개를 되돌려주기로 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9)에 수록된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역동성'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한민족 문학과 지역 문학의 범주에서 한국 문학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세계화 및 변화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역동적인 미래를 탐구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에는 채식주의자인 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관습적 폭력이 그려져 있다. 여성은 남편과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지만, 모임 참석자들은 이 여성이 채식주의자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고, 이로 인해 여성은 철저하게 소외당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2019)에 실린 「도가 사상의 전개」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19)에 실린 「도가 사상의 전개」 및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학사, 2019)에 실린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 사상」를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 수정하였다. 이 제시문은 도가 사상 중 장자의 사상을 통해 자기중심적 관점 및 편견에서 벗어나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분별이 상대적인 것임을 인지하여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갈퉁의 평화론을 활용하여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지양하고 적극적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논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지학사, 2019)에 실린 김진섭의 글 「우산, 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다」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하여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3.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단원 중 '(2)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 분야의 글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서양에서 들어온 우산이 개화기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 민간에서 우산을 금기시한 이유를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 현상 속에서 파악하고, 나아가 우산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아봄으로써 사회적 관습 및 통념이 시대와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박성희의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의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2. 독서의 방법' 단원 중 '(3) 비판적 읽기'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글에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견 제시자들에게 통설을 강요하는 폭력적 태도를 보여온 점을 비판하면서, 이를 지양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피하고 싶은 '징크스'와 해야만 하는 '루틴'」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한 글이다. 「피하고 싶은 '징크스'와 해야만 하는 '루틴'」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제시된 글이다. 이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 (아)는 루틴과 징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제시문을 통해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국어』 (교학사, 2019) 교과서에 실린 「어느 아마추어 전문가처럼」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어느 아마추어 전문가처럼」은 어린 시절 자전거 배우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그 경험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 엮어 낸 수필이다. 이 수필의 작가는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 내고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제시문 (자)를 통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지녀야 할 자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아무도 모르라고」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아무도 모르라고」는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고 창작하는 학습 활동을 위해 제시된 소설이다. 이 소설을 통해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제시문 (차)에서 보여주는 친구와 음악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지녀야 할 자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의 등장인물은 거짓된 언행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한다. (가)의 나는 점순이의 부추김에 결혼을 허락받고자 장인 앞에서 꾀병을 부린다. 그러나 결혼을 허락할 생각이 없는 장인은 나를 매질하고 점순이마저 장인의 편을 들자 나는 허탈해진다. (나)의 나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인들을 외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적 고통을 느끼며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다)의 지소는 집을 구할 돈을 얻기 위해 노부인의 개를 훔친 뒤 찾아주는 척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이 아빠를 기다리듯 노부인도 개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고 사례금을 포기하고 개를 돌려주기로 한다. (라)의 나는 모임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한다고 거짓말한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아내의 소외감은 심화되고 분위기는 한층 어색해진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결혼, 돈 등 원하는 바를 얻거나, 차별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 거짓 언행을 했으나, 허탈감, 정체성 확인, 삶의 가치 인식, 상황의 악화 등에 이르게 됐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모임 참석자들이 채식주의자인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모임 참석자들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에서는 대상에 대한 인지와 분별이 상대적이라는 장자의 철학과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억압하는 모든 폭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갈퉁의 주장이 나타난다. (바)는 우산을 예로 들어 통념이 인간을 억압하고, 대상에 대한 인식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마)와 (바)를 통합해 보면, (라)의 모임 참석자는 육식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통념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채식주의를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내의 기본적 욕구를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수의 취향을 억압하는 언어적, 문화적 폭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사)를 토대로 보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모임 참석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만 소통함으로써 사고가 편향되고 고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자들을 존중해야 하며, 통설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소수자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아내는 다수 집단과의 대화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569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설명된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할 때 지녀야 할 자세를 제시문 (자)와 제시문 (차)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아)에 따르면 루틴과 징크스는 경기에서 이기려는 열망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루틴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행동과 말이라면, 징크스는 행동과 실패 사이에 과도한 인과 관계를 부여함에 따라 패배하지 않기 위해 피해야만 하는 행동을 지칭한다. 한편 (자)를 고려하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 성공의 방법을 찾아내고, 꿈을 간직함으로써 실패의 고통을 이겨내어 계속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차)를 고려하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349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32점 만점)

(가) **이유:** 점순이의 부추김에 결혼을 허락받고자 함. (4점)
예상과 다른 결과: 결혼을 허락할 생각이 없는 장인이 나를 매질하자, 점순이마저 장인의 편을 듦. (4점)
(나) **이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벗어나고자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려 함. (4점)
예상과 다른 결과: 조선인들을 외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적 고통을 느끼며,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재확인함. (4점)
(다) **이유:**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함. (4점)
예상과 다른 결과: 자신이 아빠를 기다리듯 노부인도 개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고, 사례금을 포기하고 개를 돌려주기로 함. (4점)
(라) **이유:**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막고자 함. (4점)
예상과 다른 결과: 모임 참석자들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아내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분위기가 어색해짐. (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①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에 대한 핵심적 표현: 결혼, 돈, 차별, 어색함(불편함)
②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에 대한 핵심적 표현: 허탈감, 정체성 확인, 삶의 가치 인식, 상황의 악화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24점+16점)

1)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채식주의자 '아내'에 대한 모임 참석자들의 태도를 비판한다. (24점 만점): 3~24점 부여

① (마)와 (바)의 논지 파악: 제시문 (마)에서 대상에 대한 인지와 분별이 상대적이라는 장자의 철학과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억압하는 모든 폭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갈퉁의 주장을 서술해야 함. (10점)

② '아내'에 대한 모임 참석자들의 태도를 비판: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임 참석자들이 육식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통념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채식주의를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하는 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함. (7점). 또한, 참석자들이 아내의 기본적 욕구를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수자의 취향을 억압하는 언어적, 문화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함. (7점)

-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통합하여 모임 참석자들의 태도를 비판하였을 경우: 20~24점 부여
-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따로 요약하진 않았으나, 통합적인 비판에서 이 내용이 정리되었고,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비판에서 통합적 관점이 잘 드러난 경우: 20~24점 부여
-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으나,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비판이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되지 못하고 각각 서술된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비판 역시 통합적 관점이 드러나지 않게 서술된 경우: 3~15점 부여

2) 제시문 (라)의 '아내'와 모임 참석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한다. (16점 만점): 3~16점

① 모임 참석자들의 태도: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만 소통함으로써 사고가 편향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통설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소수자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10점)

② 아내의 태도: 다수 집단과의 대화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6점)

- 제시문 (사)의 내용을 토대로 모임 참석자와 아내가 각각 가져야 할 태도를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12~16점 부여
- 제시문 (사)의 내용을 토대로 모임 참석자와 아내가 가져야 할 태도를 서술했으나, 둘 중 하나의 주제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8~12점 부여
- 제시문 (사)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지 않고 모임 참석자와 아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잘 서술되지 않은 경우: 3~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통합하여 모임 참석자들의 태도를 비판했는지 평가 (24점): 3~24점 부여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비판 역시 통합적 관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3~15점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으나,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비판이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되지 못하고 각각 서술되었을 경우	15~20점
		(마)와 (바)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모임 참석자들의 태도를 비판하였을 경우	20~24점
	② 제시문 (사)의 내용을 토대로 모임 참석자와 아내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정확하게 서술했는지 평가 (16점): 3~16점 부여	제시문 (사)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지 않고 모임 참석자와 아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잘 서술되지 않은 경우	3~8점
		참석자와 아내가 가져야 할 태도 중 하나의 주제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8~12점
		모임 참석자와 아내가 각각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문 (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12~16점